

세계의 명문가

# 철저한 교육과 나누는 마음 통해 이루어지는 부(富)의 이전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 금년 4월, 삼성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건희 전 회장이 상속 문제로 직접 스웨덴의 명문가 발렌베리(Wallenberg)가를 방문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삼성과 많이 닮았다는 발렌베리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명문가들을 만나본다. 에디터 박지민 사진 <NOBLE ASSET>

## 가족 중심으로 일군 부, 사회에 아낌없이 환원하다

발렌베리가는 1856년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Andre Oscar Wallenberg)가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Stockholms Enskilda Bank)을 설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5대에 걸쳐 15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에서 시작해 현재 11개의 핵심 업체를 포함해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릭슨(Ericsson),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에이비비(ABB : Asea Brown Boveri), 사브(SAAB), 스카니아(Scania) 등이 있는데, 각 회사 이름에 발렌베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발렌베리가의 소유지만, 독립 경영 원칙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이 각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중심이지만 전문 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가문만의 배타적인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다. 또 다른 성공의 비결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항상 2명의 리더를 둠으로써 서로 견제 속에 성장을 유도한 데 있다.

발렌베리가의 시조인 안드레는 해군 장교 신분으로 미국에 갔을 당시 금융업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스웨덴에 돌아와 현재 두 번째로 큰 시중 은행인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의 전신,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을 창업했다. 그 후 크누트 아가손 발렌베리(Knut Agathon Wallenberg), 야콥 발렌베리(Jacob Wallenberg), 마쿠스 발렌베리 주니어(Marcus Wallenberg, Junior)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금융업에서 제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갔다.

스웨덴에서 발렌베리가는 여전히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부와 명성이 대단하지만, 실제로 경영진들의 사유 재산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발렌베리가에서는 재단을 통해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긴다. 가장 규모가 큰 크누트 앤 앨리스 발렌베리 재단(Knut and

Alice Wallenberg Foundation)을 비롯해 마리안느 앤 마쿠스 발렌베리 재단(Marianne and Marcus Wallenberg Foundation), 마쿠스 앤 아말리아 발렌베리 추모 재단(The Foundation Marcus and Amalia Wallenberg Memorial) 등이 있다. 스톡홀름 시청 앞 광장에 크누크의 동상이 있을 정도로 스웨덴 국민들이 발렌베리가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로실드가

또 다른 금융 재벌로는 8대에 걸쳐 250여 년 동안 명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로실드(Rothschild)가를 들 수 있다. 시조인 마이어 암셀 로실드(Mayer Amschel Rothschild)는 2005년 <포브스(Forbes)>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 20인'에서 7번째에 선정될 정도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다. 로실드가에서는 출가한 딸과 사위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유산도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절대 싸우는 일이 없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등 철저한 교육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어가고 있다.

로실드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게토(Ghetto : 중세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 격리시키기 위해 설정한 지역) 한구석에서 마이어 암셀 로실드가 오래된 동전을 수집해 피는 화폐상을 시작하면서 출발했다. 그리고 마이어의 뒤를 이어 장남 암셀은 프랑크푸르트를 지키고, 그 외에 차남 살로몬(Salomon)은 합스부르크 왕국이 있는 빈으로, 셋째 나탄(Nathan)은 런던으로, 넷째 칼만(Calmann)은 나폴리로, 그리고 막내아들 제임스(James)는 파리로 가서 각각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다섯 아들을 유럽의 각 도시로 보냄으로써 마이어는 전 세계적인 금융망을 구축하며 자신들의 영



역을 넓혀갔다. 또한 나탄은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자 90%나 폭락한 주식을 사들여 런던의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던 엄청난 양의 주식을 확보했고, 살로몬과 제임스는 당시 최고의 첨단 사업이던 철도 사업을 시작하는 등 아들들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두철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대에 걸쳐 세계에서 돈을 가장 탁월하게 관리하는 집안으로 불리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미국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로살드가의 전성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국·스위스·프랑스 등 유럽 곳곳의 금융업에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은행 이름에 로살드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예술을 즐기고 문화적인 취향도 매우 높았다. 학술이나 의학에 관련된 재단만 10여 개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도 했다. 나탄은 샤토 무통 로살드(Chateau Mouton Rothschild)를, 제임스는 샤토 라피트 로살드(Chateau Lafite Rothschild)를, 그리고 제임스에서 에드몽(Edmond Adolphe Maurice Jules Jacques)에 이르러서는 샤토 클락(Chateau Clarke)을 만들었다.

게다가 일가의 많은 젊은이들이 제1차,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음은 물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엄청난 금액을 후원했다. 또한 유대인의 혈통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 을 보여주었다.

### 런던 내의 부촌을 소유한 영국 내 3위 부자

현재 그로스비너 그룹(Grosvenor Group)의 출발이 된 그로스비너 가는 중세에 스크로프(Scrope) 가와의 논쟁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각 가문들은 문장(Coat of Arms)을 만들어 갑옷 위에 입음으로써 가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로스비너 가와 스크로프 가는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다. 1385년에 시작된 이 논쟁은 리처드 2세(King Richard II)가 1390년 스크로프 가의 승리로 판결 내림으로써 막을 내렸고, 그때 만들어진 그로스비너 가는 새로운 문장은 지금까지도 웨스트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의 가문에 사용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공작이라는 타이틀은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때인 1874년에 웨스트민스터 후작(3rd Marquess of Westminster)이었던 리처드 그로스비너(Richard Grosvenor)에게 수여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는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1900년대에 들어서는 휴 그로스비너(Hugh Grosvenor, 2nd Duke of Westminster)가 코코 샤넬(Coco Chanel)과 연애하는 덕분에 유명세를 치렀다. 결혼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샤넬과 연애하던 당시, 영국의 일반 신혼 부자들과는 달리 클래식한 휴의 스타일이 샤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를 만난 다음 해인 1924년, 샤넬은 트weed 재킷(Tweed Jacket)을 선보였고, 베레모나 네이비 블루 재킷, 골드 버튼 등은 그의 요트 항해사들이 입던 옷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지금의 그로스비너 가를 탄생시킨 장본인은 바로 메리 데이비스(Mary Davies)다. 1677년에 토머스 그로스비너 경(Sir Thomas Grosvenor)은 런던 변두리의 시골 땅 500에이커(약 2.0km<sup>2</sup>)를 상속받은 메리 데이비스와 결혼했다. 그 후 런던이 성장하면서 1720년대부터는 지금의 메이페어(Mayfair) 지역을, 1820년대에 들어서는 현재 벨그라비아(Belgravia)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영국 내에서도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었다. 그로스비너 광장(Grosvenor Square), 벨그라비아 광장(Belgrave Square), 데이비스 가(Davies Street) 등과 같이 적어도 500개의 길, 광장, 건물이 그로스비너 가 또는 그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현재는 그로스비너 그룹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자금 관련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가 연례로 실시하는 영국 내의 부자 순위를 매기는 조사에 따르면, 웨스트민

스터 공작가는 70억 파운드(약 140억 달러)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명 경제 전문지나 일간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부호 순위를 살펴보면, 비록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국내 재벌들의 이름이 하나 둘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재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존경 받는 명문가는 아닌 듯하다. 국외에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면서도 부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습하며 사회에도 환원해 존경과 감사를 받는 가문들이 꽤 많이 있는데 말이다. 철저한 자녀 교육과 나누는 미덕을 통해, 또는 더불어 잘 사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가문들을 통해 국내에서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쫓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선행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활성화되고 정직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명문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